

체감형 고흥 생활환경 조성... 군민 삶의 질 개선

군, 1811억 투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빗물펌프장 설치·노후관 교체 등 14건 순차 진행

고흥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하수도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를 위해 총사업비 1811억원(국비 1087억원, 도비 145억원, 군비 579억원)을 투입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군은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4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올해 5건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926가구가 새롭게 하수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또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양 도시침수 2단계와 포두 옥강 등 5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이 확정돼 4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조속한 사업 착공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도양 도시침수 예방 정비사업(656억원)은 도양읍 시가지 저지대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수관로 파손 및 침전 등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17.6km 구간

의 노후관 교체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지반 침하와 싱크홀 위험, 오수 누출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영민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전통혼례’ 올리며 K-문화 탐방 순천시 매곡동은 최근 외국인 한국어 교실 참여자, 가족 등 30명과 함께 선암사와 낙안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K-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3회차 프로그램에서는 순천의 대표 문화유산인 선암사와 낙안읍성을 방문했다. 사진은 외국인 주민들이 낙안읍성에서 전통혼례식 체험에 참여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제공=순천시

보성 민관 협력 사업 전국서 인정 받았다

‘클린600’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대상’ 수상
김철우 군수 “군민 실천이 만들어낸 변화의 결실”

보성 주민이 만들고 행정이 함께한 민·관 협력사업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군의 대표 민·관 협력형 청결책임제 사업인 ‘클린600’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각 지역의

우수정책을 발표했다. 군의 ‘클린600’은 “내 집 앞, 우리 마을부터 깨끗하게”라는 구호 아래 군 전역 600개 자연마을의 주민이 생활환경 정비에 직접 참여하고, 군이 수거·운반·처리 체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마을 단위 생활환경 정비, 읍·면의 교육·참여·홍

보, 군의 수거·운반·처리 행정 지원 체계, 생활 쓰레기 유상 수거와 재활용·폐가전 무상 수거, 방치폐기물 행정 책임 처리 등이다.

그 결과 방치폐기물과 불법소각이 현저히 줄고, 분리배출 생활화가 정착됐으며, 마을 간 교류와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면서 공동체 중심의 자치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 정책대회에서 ‘클린600’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실천·평가까지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주민자치 모델, 행정이 주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구조의 완성도, 지속 가능한 운영체제와 확

산 가능성 등을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대상은 행정이 만든 성과가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모여 만들어낸 변화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보성군은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 든든히 받치는 진짜 지방자치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클린600’의 운영 경험을 환경 분야뿐 아니라 복지·문화·교육 등 주민 생활 전반으로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 주도 정책 모델을 체계화하고 타 지자체와 공유·연대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구례, 통합돌봄지원 실행력 강화
관련법 시행 대비·서비스 공유

구례군이 통합돌봄지원사업 실무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응력 강화에 나섰다.

11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은 영 선도 지자체 사례와 서비스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오수미 부군수, 읍면 담당 공무원, 보건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 통합돌봄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이진선 광주 북구 통합돌봄정책팀장이 맡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법, 기관 간 협력 방안, 돌봄 대상자 연계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을 소개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토론회·활동 보고회

진로 로드맵 작성 대회 등
논의 결과 4건 정책 제안

광양시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 정책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토론회 및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아동참여위원회가 주체가 돼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아동의 시각에서 지역사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친해지기 시간(쁘띠파티 게임), 정책의 정의 및 이해하기, 모둠별 정책 구상 및 발표, 활동 소감 나누기 등 아동정책의 중요성과 참여의 가치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기후위기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5년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 토론회 및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비상행동 운영, 아동친화 돌레길 조성, 청소년 진로 탐색 로드맵 작성 대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논의 결과 총 4건의 정책 제안이 도출됐다.

시는 이번 활동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향후 아동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채운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을 학

교에서 배워 알고 있었지만, 다시 배우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며 “초·중·고 위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아동이 주체가 돼 아동권리 옹호 활동, 아동권리·아동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여수 두포·심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선정
국비 70억 확보...생활환경 개선·기반시설 정비·안전 강화

여수 남면 두포항과 심포항이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약 7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4년간 약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자원 고도화, 어촌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두포항과 심포항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해 어업활동과 물류 운반 효율을 높이고 응급 상황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후 포장도로

와 불편한 교통 동선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항 모두 지형적으로 파랑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침식 방지시설과 월파 방지벽을 설치해 주민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두포항·심포항이 인구감소와 어촌침체 문제 대응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어촌마을이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순천광양축협에서 열린 ‘2025년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부문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미경산우) 부문 목사동면 조신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암송아지) 부문 겸면 이금숙 농가가 ‘노력상’을 수상했다.

곡성 ‘전남 으뜸한우’ 경진대회 3개 부문 수상
‘최우수상’ 최하나·조신의 농가...‘노력상’ 이금숙 농가

곡성군은 최근 순천광양축협에서 열린 ‘2025년 제41회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고급육 부문 육과면 최하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미경산우) 부문 목사동면 조신의 농가가 ‘최우수상’, 우량한우(암송아지) 부문 겸면 이금숙 농가가 ‘노력상’을 수상했다.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는 전남의 우수한 한우를 개량화해 전남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혈통 발굴, 유전능력평가 등을 통해 전남한우 개량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개최된 전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는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각 시·군을 대상으로 출품된 113두

에 대해 6개 부문(고급육 1개 부문, 우량한우 5개 부문)에 종합합산 결과 24두(종합 1두, 우량한우 20두, 고급육 3두)가 입상했다.

군은 5개 부문에 5두가 출품돼 3개 부문에서 입상되는 쾌거를 거두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한우 개량화의 성과를 통해 곡성군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 한우 개량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우 사육 농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우 개량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곡성군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